

- 공동체운영위원회와 교회운영위원회 연석회의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모입니다.
- 어린이학교에서 수고하신 김선희선생님이 사임하였습니다.

제 37 - 46호
2020년 11월 15일

사랑방공동체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통문구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 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바울과 고린도교회의 사정

고린도후서는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 중 하나입니다. 편지는 고대사회에서 멀리 떨어진 이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긴 서신에는 많은 정성이 필요하기에, 신중하게 쓰고, 편지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편지글은 앞뒤 맥락과 쓴 배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약 1~2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보내졌습니다. 이 기간 고린도교회에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었는지, 바울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많은 고생을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스 남부지역인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교회는 바울의 선교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순회 선교사였기 때문에, 고린도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 고린도교회에 한 차례의 사도서신을 발송했습니다.(고전 5:9) 그 후에 글로에의 집안사람들이 와서 고린도교회의 문제 상황을 전했고, 해결을 위해 바울은 편지(고린도전서)를 써서 디모데편으로 보냈는데, 이 서신을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방문계획을 변경하여, 급하게 고린도교회를 찾아갑니다. 갑작스런 방문 기간은 짧았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교회의 문제를 주도하던 이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바울을 배척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에서 배척을 당한 후에,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세 번째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교회에 보냅니다.

다행히도,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교회는 회개하고 바울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 북부지역인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 이 소식을 접하게 되고, 큰 위로를 받고 기쁨으로 고린도후서를 쓰게 됩니다.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에는 바울이 관계가 회복되어 받게 된 위로와 기쁨의 감정이 배경으로 깔려있습니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지도자 자신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신령한 자로 자처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주장하며, 고린도교인들이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풀게 만들고, 편을 갈라서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매우 어렵고 민감한 문제이

므로 바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사도권을 항변했습니다.(고전4.9장/고후10.11, 12장)

이런 문제는, 세상의 논리가 신앙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작동할 때 문제가 됩니다. 세상은 왕의 논리를 따라갑니다. 이들이 권위자가 되려는 이유는 바로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권위는 그들과 다릅니다. 사도권을 항변할 때, 그간 얼마나 고생했는지, 인내하였는지 말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모욕과 박해, 곤란을 겪은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자들이라고 항변합니다.(고전4:13)

그리스도인은 권세를 부리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를 따른다는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진실되고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원래 모습입니다. 신앙공동체 안에서 권위를 세상의 논리로 이해하여 자신이 왕 노릇 하려고 할 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짓 지도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두 번째 방문에서 알 수 있듯이, 고린도교인들도 거짓 선동에 휘둘렸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인격 성숙을 위해 끊임없이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통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왕의 논리에 시선이 빼앗기면, 자신을 낚추고 섬기는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낚추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권위는 혼자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세워주지 않으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리더십뿐만 아니라 팔로우십도 매우 책임감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신을 통해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성서일기를 하면서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한주간의 말씀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고린도후서 1장 1~11절
제목 : 고난을 감사로 바꾸시는 위로의 하나님
인도 : 정재훈 전도사
찬송 : 510 487 429 412 425

1. 내용관찰(What)

<문단구분>

1절~2절 <바울의 문안인사>

3절~7절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8절~11절 <건지시는 하나님>

2. 내용의 의미(Why)

내용의 중심은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3-7절 이 짧은 5구절에 '위로'라는 말을 10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고린도교회를 향한 분명한 메세지는 '위로'인 것입니다. 이 위로는 단순하게 안慰하고 마음을 달래는 정도가 아니라 '희망'까지 전환되는 놀라운 위로입니다. 이러한 위로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바울 일행이 경험했던 위로의 하나님을 매우 강조하여 고린도교회에 설파하고 있습니다.

3. 의미의 적용(How)

- ①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에 연합하는 공동체적인 삶을 이루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자.
- ②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개개인의 신앙과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애쓰자.

주님은 영이십니다.

다양성이라는 새로운 옷

.....4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공동체의 리더와 만나면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 선뜻 응했다. 기대한 대로 바시스케마인대 공동체의 리더인 마틴. 마가렛 부부와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놀라운 통찰을 얻었다.

"출소자들을 돋고 산 지 23년째예요. 그런데 돌아보면 성과가 참 미미합니다. 올해 합천으로 터를 옮겼는데 새롭게 시작해 보려는 마음 한편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요. 주로 출소자들이 모여 있어서 그런지 다툼이 잦아요. 늘 서열을 정해 달라고 불평하고요. 언뜻 교도소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느낌이 들 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 몰라 고심할 때가 많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마가렛이 흥분된 표정으로 자신의 경험을 쏟아냈다.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공동체를 막 시작했을 때, 구성원들은 집과 모든 소유를 전부 나눠 썼어요. 그러자 노숙자와 실직자, 알코올중독자, 마약중독자 이런 이들이 도와 달라며 찾아왔죠. 그런데 그들과 같이 살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겼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비슷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만 모인 게 문제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을 다양하게 바꿨지요. 아이와 노인, 남자와 여자,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들의 비율을 적절히 맞췄어요. 그러나 나니,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데도 별문제 없이 공동체가 움직이더라고요!"

다양성! 그 하나만으로 공동체의 어려움이 해결되었다는 것이다. 공동체는 살아 있는 유기체와 같다. 다양한 동식물이 서로 이바지하며 생태계를 유지하듯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대안적 역할을 함으로써 공동체를 정화하고 유지 시킬 수 있다. 그 반면 목표가 뚜렷한 기관이나 조직은 효율성을 위해 만든 틀 때문에 경직되거나 획일화되기 쉽다. 또 개별성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통제되고, 완고한 통제 시스템에서 개인의 에너지들은 억압되었다가 부정적으로 분출되기도 한다.

마가렛이 말했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갈 때, 온전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거예요."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은 완벽해지라는 뜻이 아니라 온전해지라는 뜻이었다. 다양한 사람들이 차별 없이 어울리며 서로를 포용하는 것이 바로 온전함일 것이다.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요한복음 14 : 16-18	인도자
44	다함께
	인도자
영광 영광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로마서 6 : 23	인도자
	다함께
278	다함께
	다함께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고린도후서 3 : 1-18	설교자
성가대 찬양	286	사랑방
설교	"세상 속에 영광을 비추는 삶"	권재만목사

의탁과 성김의 삶

의탁의 기도	인도자
응답의 찬송	다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 영광찬송	다함께
* 위탁의 말씀	인도자
* 강복기도	인도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현금은 들어오실 때 현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돋는 이들 안내 : 조장희, 이재신 / 봉헌위원 : 이충환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지숙, 석지이, 오대철

공동기도문

저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서로의 모습속에 성령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속에 영광을 비추는 삶

우리는 편지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화려한 수사학이나 유려한 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다양한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추천서를 받으라는 고린도교회의 요청에 고린도 교회가 추천서이며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유행하던 외적인 화려함이나 전통을 버리고 더 크고 영원하고 온전한 것을 따르라 권면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고린도 교회와 같이 외적으로 드러난 것들만을 지키며 적당한 선을 긋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것을 사모하여 살아야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제한시키는 어떤 자격요건이나 없어져버릴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새로운 관점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이 눈꺼풀이 벗겨집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영광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율법의 제한적인 영광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꿈, 영광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거짓된 것들, 없어져버릴 것들로 우리를 채우기보다는 진정한 해방을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은 나태한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줄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줄 것이며 공동체 안에 서로의 모습 속에서 성령을 볼 수 있습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김병우 집사

꾸러기학교

추위가 찾아오나 했는데 따스한 햇볕이 우리를 반겨주는 한주였습니다. 낙엽은 떨어지고 세상은 주황빛으로 가득해졌지만 봄 같이 화창해서 아이들과 교사는 바깥활동하기 너무 좋았습니다. 목요일에 철원 고석정으로 견학을 갔는데 혹시나 입은 두꺼운 옷은 훌훌 벗어던지고 신나게 돌아다녔습니다. 견학을 가면 복 받은 상황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한탄강 통통배를 타며 고석정을 보려고 했는데 오전 운행까지만 한다고 해서 사정을 얘기하니 꾸러기만 특별히 태워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오전 운행이 올해 마지막 운행이었는데 애들이라 예뻐서 태워주셨는데 원래 견학 가는 금요일에 갔다면 못 탔을 뻔 했습니다. 여행과 견학을 가면 하나님이 교사의 준비보다 더 풍족하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꾸러기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꾸러기가 감사드림을 멈출 수 없게 해주십니다^^

11월은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란 주제로 한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전지 4장을 볼여서 땅, 바다, 하늘을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 만드신 생명체들을 종이접기로 채워 넣고 있습니다. 평소 자주하지 않아서 어려울 수 있는데도 전하고, 노력하는 꾸러기들이 참 대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알수록 아름답고, 두려울 정도로 거대한 자연을 아이들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배웁니다. 지금은 어려서 할 수 있는 것이 적지만 세상을 하나님만 만드셨다는 것과 소중하게 지켜야한다는 것을 배우기에 이후 큰 사람이 되어 깨끗하고 멋진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꾸러기는 어리지만 생각과 마음은 어리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꾸러기는 어느 면에서 어른보다 멋진 그리스도인입니다^^

< 교사 : 이어람 >

배움과 가르침

어린이학교

11월 11일이 되면 서로, 혹은 학년별로 빼빼로를 나눠먹던 일이 생각납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위해 수업 전에 간단한 먹거리를 가져가 나눠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학교에서 나눠먹지 못하니 집에서부터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휴게실의 난로도 날씨가 추워진 탓에 장작을 떼고 있지만 구워먹는 날을 가지지 못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고구마와 감자 등을 나눠먹었던 기억이 더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일상 가운데 이제 미세먼지도 심해져 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 마스크를 써야하는데 실내에서 공기청정기도 사용을 못하니 불편함이 더 커집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볼 수 있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한없이 즐겁지만 더욱 편안하고 즐거운 환경을 주지 못해 미안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고 환경도 나아져 더욱 즐거운 학교가 되기를 기도 합니다.

< 교사 : 권재만 >

멋쟁이학교

학년별 여행을 다녀온 후 일상적인 멋쟁이 생활을 한 주간이었습니다.

다시 수업과 생활에 집중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들을 충실히 해내려고 노력한 한주이기도 합니다. 여행 후 각 학년별로 여행 보고를 준비했는데요. 열린 수업 시간에 학년별로 준비한 여행 보고자료들을 함께 나누며 모든 멋쟁이들은 더욱 풍성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4학년과 5학년들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짐장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한주 미뤄져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걸쳐 짐장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어디서도 경험해 볼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제 종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자치회를 통해 종강발표회 준비도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학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 장영미 >

2년이라는 시간을 정리하며

여름이 지나고 서늘한 공기가 찾아오더니 이제는 매일 매일이 쌀쌀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다들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2020년을 잘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저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군대에 들어갑니다. 2년 동안 같이 살면서 정도 많이 주시고 사랑도 많이 주셔서 2년이 너무 짧고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에 반해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간이 정말 가지 않는다고 어떡하냐고 놀렸습니다. 다들 저를 좋아서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믿지만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옆에서 들고 있을 때는 내 일이라 마음 놓고 웃을 수도 없고 조금 힘들었습니다.

다들 저에게 많이 해주셨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혹은 대학교 졸업하고 다시 사랑방공동체로 돌아올 생각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방공동체 다시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아직 확답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대학교도 졸업을 해야 하고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일도 많아요. 하지만 정말 다시 오고 싶어요. 꼭 결혼해서 들어오고 싶어요.” 라고 웃으며 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어린이학교 생활을 마무리 지으면서 아이들과 같이 살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교사라고하기에는 저는 능력도 부족하고 전문적이지도 않는데 아이들한테 교회 형 같은 동네 형처럼 보였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더러 실수로 형이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저한테 유독 많이 까부는 친구들도 있었고, 돌이켜보면 아이들 때문에 화도 많이 나고 아이들 덕분에 눈물도 흘리고 아이들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덧붙여 어린이학교 다른 선생님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기에 지금 어린이학교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양육하시죠. 그리고 저한테도 한 걸 같이 잘해주셔서 저한테는 다 엄마였던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마치며 저한테 사랑방공동체에서 보낸 2년이란 시간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래도 없고 시간을 내다 버린다고 생각하여 말을 많이 하지 만 저에게는 정말 귀하고 값진 시간이었고 잊지 못할 2년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어디에 가더라도 여기서 느끼고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고, 참고 기다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2년간 저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함께 지난 시간이 참 감사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김선희 청년

함께사는 이야기

〈 수요 정오기도회 〉

말씀 : 마태복음 10장 26절-28절

인도 : 권재만 목사

기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코로나-19 백신>

코로나-19 백신이 순차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몇몇 나라에서는 접종을 한다는 보도를 접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한 이러한 기회들이 국가의 이익이나 빈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정의롭게 이루어지도록, 소외되거나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새터마을>

모든 가정이 순조로이 잘 연합되게 하시며, 흩어져 있는 새터마을 가족들이 각자의 삶을 잘 정리하여 하나 됨을 이루어 가도록.

새터민 정착 준비 프로그램들(찻잔사역, 베데스다 사역, 새터민 세미나, 공동체 기업 및 대안학교 운영, 새터민 공동생활 등)이 순차적으로 정성스럽게 잘 준비되도록.

이 땅의 새터민들과, 복음과 자유의 품을 갈망하는 모든 가난한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들이 이 땅에 든든히 그리고 풍성히 서 가기를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환절기에 교회와 마을의 어르신들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생활공동체 소식 〉

지난주 초에는 새벽에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있었지만, 점차 기온이 올라 날씨가 포근해졌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추위를 준비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김장입니다. 생활공동체 식구들과 멋쟁이 학생들이 함께 김장을 합니다. 지난주에 김장을 예정하였다가, 한 주 미루었습니다. 작업반장인 나집사님이 지난 수요일 작업 중에 손가락을 다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 퇴원했지만, 회복의 과정이 잘 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공동체학교 학생들은 바쁘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학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연일 세 자리 수를 기록하는 코로나 때문에 안전을 위해 더욱 기도를 하게 됩니다. 큰 탈 없이 학기가 마무리 될 수 있기를 마음모아 기도합니다.

< 정재훈 전도사 >